

“창고 주차장 지을 수 있게 됐어요”

원주 유가공업체 (주)데어리젠 본보 보도 후 애로사항 해결

“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.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”

16일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에 위치한 유가공업체 (주)데어리젠의 고영웅(53) 사장은 1년 이상 고민했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전화를 받고 뿔 듯이 기뻐했다.

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주력 상품인 치즈와 우유 등에 대한 주문이 늘고 있지만 창고

주차 지을 공간이 부족했던 차에 불

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공장 바로

옆의 국가 소유 부지 3,300㎡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연락이 왔다. 고 사장이 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다.

(주)데어리젠은 이 시기부터 우유를 만들어 서울우유에 OEM(주문자생산) 방식으로 납품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공간이 부족해 생산한 우유를 보관할 장소가 없었다. 다른 곳으로 이전까지 고민하던 고 사장의 눈에 빈 공터 하나가 들어왔다. 회사 인근에 도로가 나면서 회사와 도로 사이에 자투리 땅이 생

겼던 것.

고 사장은 이를 매입하려 했지만 이곳이 정부 부지이고 1,000㎡ 규모 이상은 규정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절망했다. 요즘같은 불황에 이해하지 못할 규정마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다.

이 같은 소식이 강원일보 연중 기

읍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가 하천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방문해 협의했다.

수차례 회의와 현장을 찾아간 끝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하천부지와 해당 국유지를 연계해 임대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정 과장은 이 소식을 곧바로 회사 측에 알렸고 고

사장은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
이 같은 발 빠른 조치로 이 회사는

연간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더 올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. (주)데어리젠은 부지 활용 계약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벌여 이 부지에 주차장과 임시 창고 등을 지어 사용할 계획이다.

고 사장은 “이번에 도와 원주시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자치단체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고 감동까지 했다”며 “올 매출 목표인 130억~150억원을 꼭 달성하겠다”고 다짐했다.

유병욱기자 newybu@kwnews.co.kr

도·시 나서 회사 인근 국유지 3,300㎡ 사용 허가 받아
조만간 부지활용 계약 ... 연매출 10억 이상 증대 효과

획 ‘힘내라 강원경제(3월6, 17일자 11면 보도)’를 통해 전해지자 도와 원주시 등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섰다.

도 기업지원과 정영택 과장 등 직원들은 두 차례 현장을 둘러본 후 기획재정부에 부지 매각을 건의했다.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산림관리과, 지역도시과 등 청내 관련 실과 실무자들을 소집,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.

정 과장은 해당 부지가 하천을 끼고 있다는 점에 착안, 원주시 문막